

정현지

신입

여, 1996 (28세)

이메일 cooki3433@naver.com | 휴대폰 010-5630-3231 | 전화번호 010-5630-3231

주소 (41584) 대구 북구 중앙대로



학력

계명대학교

대학교(4년) 졸업



전공

철학윤리학과

언론영상학과



경력

타이완슈가 포항중앙점

총 4년 9개월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포트폴리오

-

나의 스킬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html

css

Figma

UI/UX디자인

로고디자인

배너디자인

상세페이지디자인

웹디자인

앱디자인

학력 대학교(4년) 졸업

2015.03 ~ 2019.08

졸업

계명대학교(4년제) 철학윤리학과

복수전공 언론영상학과 | 지역 대구 | 학점 2.6/4.5 | 주/야간 주간

2012.03 ~ 2015.02

졸업

경상여자고등학교 문과계열

경력 총 4년 9개월

2019.08 ~ 2024.04

4년 9개월

타이완슈가 포항중앙점 사장 · 자영업

매장 운영 및 음료제조

아르바이트 직원 관리

매장 내 필요로 하는 인채물 작업

음료 사진 촬영

메뉴 개발

경험/활동/교육

2024.08 ~ 2025.02

그린컴퓨터디자인학원

교육이수내역

[디지털디자인] UI/UX 반응형 웹디자인&웹퍼블리셔(디자인&코딩)양성

2015.12 ~ 2016.11

피자알볼로

아르바이트

매장 고객응대 및 주문, 홀서빙, 부자재 관리, 청소
이사로 인해 아르바이트 그만둠

2017.03 ~ 2019.03

카페 슈텐

아르바이트

매장 고객응대 및 빵 판매, 음료 제조, 청소, 부자재관리

자격/어학/수상

2024.11

GTQ일러스트 1급

최종합격

한국생산성본부(KPC)

2021.06

GTQ포토샵1급

최종합격

한국생산성본부(KPC)

2010.04

정보기술자격(ITQ) 아래한글 A등급

최종합격

한국생산성본부(KPC)

2010.04

정보기술자격(ITQ)한글파워포인트 A등급

최종합격

한국생산성본부(KPC)

2015.01

2종보통운전면허

최종합격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24.09

JLPT

4급/PASS

일본어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배움의 즐거움]

저는 항상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간단한 손그림과 포스터 제작을 즐겼으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웹디자인에 대한 흥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카페 운영 초기, 홍보물과 배너 제작을 외부에 의뢰했지만, 고객의 반응이 미흡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디자인 도구를 익히기 시작했고, 고객층에 맞춘 디자인을 만들어 인쇄하여 사용했습니다. 매장의 미흡한 부분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직접 관련한 제작물은 매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고,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웹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관련 강좌를 수강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료했습니다. UX/UI 디자인의 원리와 트렌드, 그리고 다양한 도구 사용법을 익히면서 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웹디자인 강좌 수료와 카페 운영 당시의 경험은 제가 단순히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며 디자인에 반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이를 발전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웹디자인 분야에서 성장하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및 장점

[빠르게 습득하고 제대로 파악하며 부드럽게 적응하는 커뮤니케이터]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클래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저의 장점은 “습득력이 빠르다.”였습니다. 단순히 소속된 집단에서의 맡은 일에 대해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분위기나 규율 법칙 등을 잘 파악하고 빠른 습득력으로 맡은 일을 이해하여 빠른 시간 내 집단의 흐름에 잘 맞춰나가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생 시절 비교적 많은 제품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개인 빵집이라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빵들이 대부분이었고, 제품의 이름 또한 개인이 작명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이들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모두 습득했습니다. 포스기 조작부터 정산, 판매, 기호에 맞는 추천까지 어렵지 않게 해냈습니다. 가게에 파는 제품들을 사진 찍어 다음 근무시간까지 모두 외워서 갔고, 베이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 후 고객들의 기호에 맞게 판매까지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어떤 것을 자주 구매하시는지, 어떤 맛을 선호하시는지 빠르게 파악하여 추천해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추천해드린 타르트가 입에 아주 잘 맞으셨던 고객은 오실 때마다 대량으로 구매해가시며 만족스러워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비스직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단체 혹은 소규모의 만남에서 나오는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합니다. 대구시 청소년 문화의 집-화장품 동아리 ‘청화’에서 첫 만남 당시 동아리원들의 소개를 듣고 다음 활동에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기억해준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활동주제를 회의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읽으로써 생기는 자신감과 그 정보들을 공유함으로 인해 동아리 내 활발한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향수 만들기’, ‘학생들과 화장품 정보 나누기’ 등의 활동에서 호의적인 결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동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쉽게 끌리고, 시간이 지나면 끌렸던 것조차도 기억 못 하게 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래서 더욱 상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태되어 있지는 않은 가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은 매장운영을 한 지 3달 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라는 타이틀이 사그라지고, 계절도 선선한 가을로 지나가면서 매출이 서서히 줄어든 시기에 뭔가 고객들을 환기시킬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맛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우리 가게 제품과 잘 어울리는지 조사하고 만들어 맛을 본 다음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메뉴의 사진을 직접 찍고 편집하여 신메뉴 홍보용 배너로 만들었습니다. 신메뉴 출시로 인한 환기는 가게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을, 겨울 매출도 문제 없이 흑자를 남겼으며, 이후 계절이나, 음료 시장 내 유행하는 맛에 따라 여러 신메뉴를 출시, 편집, 판매하여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디자인이란 단순히 시각적 표현을 넘어 사용자와 브랜드 간의 소통을 돕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딩과 마케팅에 적합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자연스럽게 전문 웹디자이너로서 더 깊이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매장을 정리 후 웹디자이너로서 성장을 위해 학원에서의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툴을 여러 가지 배우며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이란 단순히 툴을 이용해서 보기에 좋은 것 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사용자 작업물을 사용하거나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인가 까지 고려해야하는 업무임을 배웠습니다. ‘좋은책 어린이’ 사이트를 리 디자인 할 때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리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사이트 방문자가 학부모와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이트는 네비게이션 바는 잘 정리되어 있는 반면 웹사이트 방문자가 자주 찾는 페이지나 정보는 찾기에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불어 웹사이트의 시각적 요소가 다소 트렌드에 떨어지는 감이 있어 사이트를 자주 찾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그림위주의 디자인,가독성이 좋고 귀여운 느낌의 폰트, 포근한 컬러감으로 웹사이트를 리디자인 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기존 상세페이지를 리디자인 하는 작업, 가상으로 기획하고 들어갈 내용을 구성하여 새로이 만드는 작업, 두가지 모두를 했습니다. 우선 정보성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정하고, 상품이 내고자 하는 분위기에 맞는 컨셉과 색상톤을 정해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상세페이지를 리디자인 할 때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후 그것을 가독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질 만한 내용의 경우 따로 이미지나 그림을 편집하여 삽입하여 정보전달에 용이하게끔 작업했습니다. 가상의 판매를 기획하여 상세페이지를 기획 할 때는 기존 판매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파악 후,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판매 컨셉을 잡아 디자인 구상 후, 정리한 내용과 이미지를 편집하여 새로이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웠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배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실무적인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

[대화가 필요해]

서로 원하는 바, 말하고자하는 내용, 목표한 것이 같은 경우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뒤틀린 경우 해결을 위한 과정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해결 상황이 나타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카페 매장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은 날, 중년 남성 고객님의 호기심에 음료를 사 드셨다가 자신이 생각한 음료와 다른 맛에 크게 당황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이 생각한 맛과 다른 맛, 이 음료에 대해 생소한 자신을 드러내기 불편한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기분이 나쁨을 표출하고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맛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고 들어가는 재료를 알기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 엄청 낫선 맛은 아니기에 계속 드셔보시면 괜찮으실 것이라 유도하여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용을 주고받아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말의 뉘앙스, 쓰이는 단어 등 모든 것이 결합돼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대화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사내에 발생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